

기아車 '디자인 혁신' 승부 건다

첫 작품 '박스카' AM 제네바 모터쇼 공개

세계적 디자이너 영입·전문 센터 설립키로

오는 9월 양산예정인 기아차 광주 공장의 CUV 신차 'AM'(프로젝트명)은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하나로 꼽힌다.

AM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78회 제네바 모터쇼'에 콘셉트 카 SOUL(소울)이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이며 스포티지·뉴카렌스와 함께 광주공장의 '트로이카'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AM은 세계 자동차의 흐름을 반영한 '박스카(지프 모양)' 스타일로, 출시되기도 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짚은 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간 기아차가 비스토·모닝 등 경차의 툴보이(tall boy·차량의 전고가 높은 디자인) 스타일의 자동차를 선보인 적은 있지만 박스형 디자인을 도입한 것은 'AM'이 처음이다.

디자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자리매김하려는 기아차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2006년 차별화된 유의 디자인으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디자인 경영'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이에 대한 첫 수순으로 아우디·폭스바겐 등에서 디자인 총괄 책임자를

지낸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55)를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한데 이어 375억원을 투입,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자동차 전문 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이같은 작업을 통해 드러난 기아차 디자인의 정체성은 '직선의 단순화(The simplicity of the straight line)'로, 컨셉트카 키(kee), 익시드(Ex-Cee'd), 큐(kue) 등에 적용됐다.

'2007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선보인 키(Kee)는 클래식한 라인을 살린 우아한 스포츠 쿠페 스타일의 컨셉트카로, 유행을 타지 않는 군더더기 없는 정돈된 스티일을 선보이며 한국 자동차의 새로운 디자인 기준을 세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 77회 제네바 모터쇼'에 출품한 익시드(EX-Cee'd)는 스포티하고 날렵한 디자인으로 미국 자동차 전문

사이트(Autospies.com)에 독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출품된 큐(Kue) 역시 기능성 대상에 선정될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현재 출시된 차량 가운데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의 경영철학이 구현된 제품은 모하비(MOHAVE)다. 모하비는 '직선의 단순화'를 바탕으로 간결과 섬세함의 조화가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전성기를 넘긴 것과는 달리 기아는 강하고, 혁신적이며,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즐겁고 활력을 주는 디자인과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전세계 대학생 봉사·문화교류 활동

기아차 '워크캠프' 참가자 모집

기아자동차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세계 짚은이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며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활동을 펼치는 국제 자원활동인 '워크캠프(Work Camp)' 참가자 40명을 선발한다.

참가자격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국내 대학(원)생이며, 다음달 11일까지 편기아 홈페이지(www.funkia.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아차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최종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워크캠프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4주간 독일

과 프랑스·영국·일본·라오스 등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 펼쳐진다. 프로그램은 ▲문화교류 ▲세계가 담면한 이슈에 대한 워크숍 ▲건축·농업·문화·예술·사회봉사 등에 관한 현장학습 등이다.

기아자동차는 최종 선발된 학생들에게 항공권과 캠프 참가비 등을 지원한다.

또 캠프가 끝난 후 서울 근교의 유스호스텔에서 캠프 체험단 발표와 캠프 사진전, 명사 초청강연회 등 보고회를 갖고 활동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아시아나 항공 '국가고객만족도' 1위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생산본부가 선정한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를 11년 연속 차지해 인증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생산본부는 미국 미시간대학과 공동으로 지난 한해 아시아나

항공을 편도기준으로 4회 이상 이용한 만 18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을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은행 주총...작년 1천1백억 순익

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26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제4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사진> 흥성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와 양경희 양&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사회와서 선임했다. 김종남 서남해안포럼 광주위 원장과 김동일 우리금융그룹 전무는 유임됐다. 또 이날총회에서는 영업 수익 9천767억원, 당기순익 1천127

억원 등을 기록한 2007년 재무제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정태석 은행장은 이날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통해 작지만 강한 은행, 최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초우량 지역은행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신보기금 호남본부 무료 '창업스쿨' 운영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27일부터 이를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무료 '창업스쿨'을 연다.

이번 '창업스쿨'은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창업지원종합시스템'의 일환으로, 예비 창

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창업스쿨'은 지난 24부터 전국 9개 창업플라자별로 개별 진행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4월은 지구의 달' 캠페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 1층 아베다 매장이 '4월은 지구의 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환경 기부금 3천원을 내는 고객들에게 친환경 재활용 물병을 제공한다.

기업 지방세 부담 5~10% 준다

비주거용 건축물 과표 가산율 단계적 축소·폐지

10%, 단층특수건물 10~20% 등 총 6종이다.

이중에서 행안부는 6월 말까지 대형건물의 가산율은 폐지하고 특수설비와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 세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나머지 고층건물 등은 가산율에 대해서는 연말에 축소나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기

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지원대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6월 말까지 공장·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6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의 특성과 면적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건물 신축 비용인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고층건물이나 호화내장재 사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산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버스·화물차·택시업종도 세부담 낮춰

유가상승 등으로 경비가 증가한 버스·화물차·택시업종 등의 경비율이 올라가 세금부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비율제도는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일정비율로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285개, 기준경비를 247개

다. 국세청은 유가 상승으로 경비가 증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순경비율이 조정된 285개 업종 중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택시, 덤프트럭, 분뇨수거, 건설용 모래·사과 채취, 도매 농수축산물 등 수입금액 대비 유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174개 업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인상해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어업법인망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도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돼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연합뉴스

중企 원자재 구매

1200억 추가 지원

최근 철강과 구리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1천200억 원을 주가로 조성키로 했다.

또 구리 등 수급 애로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물자 방출량을 늘리고 철강의 장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철강설비 신·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방안'과 '서비스 수자 개선대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알틴제로의

**강력한 알코올 분해작용이
숙취를 깔끔하게 해소합니다!**



알틴제로

국내 최초 알코올 0% 맥주
국내 최초 알코올 0% 맥주
국내 최초 알코올 0% 맥주

숙취로
입단신과

알코올분해
갈증해소